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서비스센터 부문 11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평가 이후 단 한 번도 왕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시멘트 부문에서 1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한일시멘트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 한일시멘트 봉사단 'WITH'.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All Star 기업

순위	기업명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자동차
3위	LG전자
4위	유한양행
5위	유한킴벌리
6위	SK하이닉스
7위	카카오
8위	SK텔레콤
9위	네이버
10위	신한은행
11위	포스코
12위	신한카드
13위	인천국제공항공사
14위	삼성화재해상보험
15위	LG화학
16위	신세계백화점
17위	LG생활건강
18위	한국전력공사
19위	S-OIL
20위	SK이노베이션
21위	삼성생명보험
22위	이마트
23위	삼성물산
24위	삼성SDI
25위	서울아산병원
26위	KT
27위	풀무원
28위	오뚜기
29위	국민은행
30위	기아

※ 자세한 내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홈페이지(www.knacc.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도 자기 혁신과 ESG가치 창출, 그래서 더 빛났다

(환경·사회·지배구조)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삼성전자·현대차 등 10개 기업 19년 연속 'All Star 기업'에 선정 90개 산업군 중 13개 산업에서 19년 연속 '산업별 1위 기업' 탄생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사장 한수희·이하 KMAC)은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KMAC가 자체 개발한 조사 모델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업 전체의 가치 영역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로 19년째 전통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조사는 혁신능력·주주가치·직원가치·고객가치·사회가치·이미지가치 등 총 6대 가치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에서 존경받는 30대 기업을 선정하는 'All Star 기업' ▲산업별로 선정하는

'산업별 1위 기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All Star 기업'은 2020년 매출과 순이익, 2021년 조사 결과 내 추천율을 기준으로 사전 조사 후 150개 후보 기업으로 압축했다. '산업별 1위 기업'은 산업별 매출액, 시장 규모(GDP), 경쟁 정도 등을 종합해 90개 후보산업군(群)을 선정했다.

◇All Star 기업: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 19년 연속 선정

올해 'All Star 기업' 조사 결과 총 10개 업체가 19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현대자동차·LG전자·유한양행·유한킴벌리가 2~5위에 올랐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신한은행·신한카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혁신 DNA 이식으로 내·외부 역량을 동시에 강화한 기업들 약진이 두드러졌다. 선제적으로 내·외부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가운데, 삼성물산·유한양행·유한킴벌리·풀무원·S-OIL 등 차별적인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선 기업들 이름도 빛났다.

◇산업별 1위 기업: 총 13개 산업에서 19년 연속 1위 탄생

올해 '산업별 1위 기업' 조사에서는 총 90개 산업군(제조 34개, 서비스 46개, 공공 10개) 중 총 13개 산업에서 19년 연속 1위 기업이 탄생했다. 제조 부문에서 한일시멘트(시멘트)·유한양행(제약) 등 5개 기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삼천리(도시가스)·신한은행(은행) 등 8개 기업이 그 주인공이다. 이 산업 조사가 실시된 이후 5년 이상 연속 1위를 굳건히 지킨 27개 기업도 주목받았다. 제조 부문의 한샘(가정용가구)·일신방직(면방직)·동원산업(수산), 서비스 부문의 삼성물산(건설/종합상사)·삼성전자서비스(서비스센터)·영진전문대학교(전문대학)·서울아산병원(종합병원), 공공 부문의 인천국제공항공사(SOC시설관리)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센터 부문 11년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다.

◇'산업별 1위 기업'이 존경받는 확실한 이유

위기 때마다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성장을 이끈 기업들이 두드러졌다. 한샘(가정용가구)과 한국타이어(타이어)는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린나이코리아(가정용보일러)·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베이커리)·캐논코리아(사무기기)는 고객 가치에서, 한일시멘트(시멘트)·일신방직(면방직)은 직원가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업계 ESG 선도 기업인 동원산업(수산)·매일유업(유가공)·한솔제지(제지)는 이해 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종합 평가해 전년도에 이어 연속 선정의 기쁨을 누렸다.

서비스 부문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가진 대교(교육서비스)·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11번가(오픈마켓) 등은 고객가치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서비스센터)·바디프랜드(헬스케어)도 이해관계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너지)·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검증) 등 혁신 마인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상윤 기업가치혁신부문 부문장은 "기업 환경과 소비자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기업 이해 관계자의 범위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ESG 경영도 기업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객원기자



유한이 가야하는 길.

국민이 사랑하고, 국민과 함께 자란 기업 유한양행 지난 90여년 동안 이어진 정직과 성실의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지금의 유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합니다.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도약,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다가올 100년에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결과



부문명	산업명	1위 기업	2-3위 기업(1위 기업과의 격차)
제조	가정용가구	한샘	신세계까지(0.03), 이케아코리아(0.05)
	가정용보일러	린나이코리아	경동나비엔(0.11), 귀뚜라미(0.55)
	건강기능식품	종근당건강	KGC인삼공사(0.13), 한국암웨이(0.23)
	건축자재	LX하우시스	KCC(0.13), 현대L&C(0.16)
	냉장/냉동육	하림	농협목우촌(0.05), 동우팜푸드에이블(0.30)
	먹는 샘물(생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심(0.01), 하이트진로음료(0.04)
	면방직	일신방직	국일방직(0.09), 대한방직(0.11)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0.03), GC녹십자(0.04)
	반도체	삼성전자 DS부문	SK하이닉스(0.16), 한미반도체(0.97)
	베이커리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주르)(0.13), 신라면과(0.32)
서비스	사무기기	캐논코리아	HP코리아(0.03), 신도리코(0.05)
	생활가전	LG전자 H&A사업본부	삼성전자 DX부문 생활가전사업부(0.06), 위니아전자(1.43)
	생활용품	유한킴벌리	LG생활건강(0.10), 아모레퍼시픽(0.12)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0.16), 한화토탈(0.72)
	수산	동원산업	한성기업(0.68), 신라교역(0.70)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0.23), 오티스엘리베이터(0.39)
	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0.81), 쌍용C&E(0.86)
	외국계 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로슈(0.07), 한국아스트라제네카(0.09)
	유가공	매일유업	빙그레(0.24), 서울유유(0.27)
	유아용품	메디앙스	제로투세브(0.02), 한세드림(0.16)
서비스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0.21), 르노삼성자동차(2.80)
	자동차부품	현대모비스	만도(0.45), 현대위아(0.69)
	작물보호제(농약)	파판농	경농(0.11), 농협케미칼(0.11)
	제약	유한양행	GC녹십자(0.78), 한미약품(0.84)
	제지	한솔제지	무림페이퍼(0.16), 깨끗한나라(0.21)
	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0.25), 현대중공업(0.43)
	중합식품	농심	CJ제일제당(0.21), 대상(0.49)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0.72), 고려아연(1.40)
	친환경 도료	노루페인트	KCC 도료부문(0.07), 삼화페인트(0.23)
	타이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0.43), 금호타이어(0.67)
서비스	패션	삼성물산 패션부문	LF(0.03), 신세계인터내셔널(0.06)
	화장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0.14), 한국콜마(0.65)
	환경가전	코웨이	SK매직(0.13), 쿠쿠홈시스(0.89)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0.10), SK이노베이션(0.17)
	가상 이동 통신망(일동통신)	SK텔레콤	KT엠모바일(0.08), LG헬로비전(0.37)
	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0.01), GS건설(0.33)
	게임콘텐츠	넷마블	엔씨소프트(0.01), 펠어비스(0.09)
	교육서비스	대교	웅진씽크빅(0.12), 교원(0.15)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0.08), 하나금융지주(0.24)
	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0.03), 삼성증권(0.05)
서비스	도시가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0.29), 예스코(0.45)
	렌터카	SK렌터카	쏘카(0.04), 그린카(0.07)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0.37), 한화솔루션 갤러리아부문(1.30)
	보증보험	SG서울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0.16), 한국주택금융공사(0.19)
	보험중개	피플라이프	에이플러스에셋(0.09), 메가(0.29)

부문명	산업명	1위 기업	2-3위 기업(1위 기업과의 격차)
서비스	발달관리서비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현대엔지니어링(0.06), 포스코O&M(0.09)
	사이버대학	한양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0.41), 경희사이버대학교(0.53)
	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0.73), 신한라이프생명보험(0.78)
	서비스센터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고객지원(1.02), 위니아에이드(1.25)
	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0.11), KB손해보험(0.68)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GS리테일(GS THE FRESH)(0.08),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0.68)
	신용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0.10), 삼성카드(0.19)
	오픈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0.05), 쿠팡(0.09)
	외국계 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0.18), ABL생명(0.39)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0.13), 하나은행(0.68)
서비스	저비용항공	에어부산	진에어(0.04), 제주항공(0.04)
	전문대학	영진전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0.06), 영남대학교(0.20)
	전자제품전문점	하이프라자(LG전자베스트샵)	삼성전자판매(삼성디지털프라자)(0.06),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0.64)
	정보기술	삼성SDS	포스코ICT(0.13), LG CNS(0.15)
	정보보안	SK실티스(SK인포섹)	이글루시큐리티(0.07), 원스(0.11)
	정유	S-OIL	SK에너지(0.09), GS칼텍스(0.30)
	종합대학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0.05), 서울대학교(0.10)
	종합물류서비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벌로지스(0.10), LX판토스(0.65)
	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0.36), 서울대학교병원(0.37)
	종합상사	삼성물산 상사부문	포스코인터내셔널(0.04), SK네트웍스(0.48)
서비스	지역금융	대구은행	부산은행(0.01), 경남은행(0.14)
	콘도미니엄	소노호텔&리조트	하이원리조트(0.49), HDC리조트(0.62)
	통신서비스	SK텔레콤	KT(0.08), LG유플러스(0.26)
	편의점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0.09), 이마트24(0.44)
	포털서비스	카카오	구글코리아(0.07), 네이버(0.10)
	프랜차이즈	비케이알(버거킹)	한국맥도날드(0.06), 케이씨씨코리아(KFC)(0.09)
	할인점	이마트	코스트코리아(0.67), 농협유통(하나로마트)(1.26)
	해운물류서비스	HMM	SK해운(0.05), 대한해운(0.05)
	헬스케어	바디프랜드	브람스생활건강(0.16), 북정제형(코지마)(0.19)
	AI 스마트 학습	교원	메가스터디교육(0.08), 천재교육(0.15)
서비스	IPTV	SK브로드밴드(B TV)	KT(올레TV)(0.08), LG유플러스(+ TV G)(0.23)
	IT솔루션	인텔코리아	구글코리아(0.22), 한국IBM(0.23)
	TV홈쇼핑	현대홈쇼핑	CJ ENM(CJ온스타일)(0.03), GS리테일(GS SHOP)(0.11)
	T-커머스	KT알파(K소핑)	신세계TV쇼핑(0.04), SK스토아(0.11)
	VR-AR	골프존	카카오VR(0.41), 리얼아구존(0.47)
	건설 공기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0.32), 국가철도공단(0.54)
	검사검증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0.08), LX한국도정보공사(0.09)
	공공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암센터(0.02), 국립재활원(0.07)
	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0.12), 한국수력원자력(0.14)
	수출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0.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36)
서비스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0.06), 한국석유공사(0.69)
	연기금융용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0.02), 한국주택금융공사(0.02)
	의료지원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0.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0.55)
	중소기업진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 창업진흥원(0.49)
	SOC 시설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0.46), 한국도로공사(0.90)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홈페이지(www.kma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만2203명 설문... 고객·사회 등 6대 가치 평가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기업의 전 사회적 역량과 가치 영역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인증(認證)이다. 우리 기업들의 바람직한 기업 경영 활동 모델 발굴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정받은 기업만이 선정될 수 있다. 혁신능력·주주가치·직원가치·고객가치·사회가치·이미지가치 등 총 6대 가

치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계 종사자 8408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193명, 일반소비자 3602명 등 총 1만2203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KMAC는 19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우수 사례를 알리기 위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의 가치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All Star 기업' 후보 150곳 조사해보니... ESG 경영 인식 높았지만 소비자 체감은 낮아

KMAC는 올해 처음으로 'All Star 조사' 후보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추진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실제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All Star 기업'은 ESG 경영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 관점의 ESG 경영 인식조사 결과, 전반적 평가는 10점 만점에서 5.83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 못했다. 특히 산업계 종사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7점대로 평가한 반면 일반 소비자는 4점대로 낮

게 평가해 인식 차를 보였다. 기업들이 ESG 경영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아직 크지 않았다.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꾸준히 추진해야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된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서비스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탄소중립 정책 확대 등 환경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이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제언

"기업 이익, 사회와 나누는 건 지출 아닌 생존"

KMAC는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각 기업들은 현시대에 맞는 '존경받는 기업'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생존 활동이다. 소비자·직원·협력사·정부·지역사회·주주 등 기업 가치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주체로 고객의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명확한 ESG 수준 정립 후 실천 지향형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업종과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맞춤형 ESG 진단 체계로 목

표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설계한다. 이로써 구성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내재화와 습관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고객 경험 제공이다. 특히 인구학적 특성(연령·성별·직업)의 데이터 분류에서 벗어나 '고객 경험 패턴'으로 전환해 각 상황과 맥락에 공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지속 성장을 구현하려면 인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더 이상 연봉만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기업문화, 기술 환경, 업무 공간 등 직원들의 직장 경험을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정리·김수정 객원기자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사무기기 1위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imageRUNNER ADVANCE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스를 실현하다

자세한 사항은 캐논코리아지침 참조하십시오
<https://kr.canon/>



2009년 최초로 지정받은 녹색기업 인증 계속 유지



유한양행은 오너 기업들과는 달리 공익법인인 유한재단이 최대 주주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직식을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기부하며 사회공헌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도 실천 중이다. 유한양행은 국제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구축하고, 2009년 최초로 지정받은 녹색기업 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오장공장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정부 규제를 준수하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내 기준까지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능동적인 모니터링 및 현황 파악으로 배출 추이를 관리한다. 집계된 측정 자료는 녹색기업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 등을 통해 공유한다. 지난해에는 초저녹스(超低NOx·질소산화물)보일러를 도입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저감에 기여했다. 활성탄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여과식(式) 방지시설은 교체해 오염물질도 최소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 및 기부활동으로 기업의 가치도 나누고 있다.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활동의 모토는 '사람을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이다. 유한양행은 다양한 활동으로 기업의 가치를 나누며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르신 위한 '건강의 빛'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의약품 지원 ▲보건 분야 학술 연구 지원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국내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자원봉사 ▲봉사 지원 ▲해외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다양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일 다른 주제의 비대면 재택봉사까지 하고 있다. 매년 연말 임직원들의 물품 기부 및 구매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정도(正道)경영 확립'을 경영 방침으로 세우고 '윤리 경영'을 최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체계화된 준법경영시스템으로 투명한 경영활동 등을 구축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은 전사(全社) 부패 방지 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됐다.

유한양행은 창업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하 CP)을 도입해 모범적인 준법경영시스템으로 완성했다.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부패 근절 의지 속에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시스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P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담당 부서인 준법경영팀을 최고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하며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했다. 또한 CP 전담 변호사를 담당 부서 내에 배치해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까지 강화했다.

20여 년간 몽골에 여의도 11배 면적의 숲 조성



공익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잘 알려진 유한김벌리는 1970년 유한양행과 미국 제지회사 김벌리클라크(Kimberly-Clark)의 합작사로 설립됐다. 유한김벌리는 기저귀·생리대·미용티슈 등을 생활필수품으로 정착시키며 위생 건강과 문화 발전을 이끌었다. 유한김벌리는 윤리경영·사회공헌·환경경영·노경화합·스마트워크 등 경영혁신 모델로 주요 사업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생활용품 선도 기업'이다.

유한김벌리는 지난해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비즈니스 전반에서 성장 및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CEO 직속 ESG 위원회를 운영한다. 유한김벌리 ESG 위원회는 환경(E) 소위원회, 사회(S) 소위원회, 거버넌스(G)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경영체계 ▲환경경영 이행 관리 ▲지속 가능 제품 혁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등 사회공헌 임팩트 증대 ▲준법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을 가속화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주요 탄소 흡수



20여 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여의도의 11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조성한 '몽골 유한김벌리 숲'은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사막화 방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원(源)인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유한김벌리는 이미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국·공유림에 54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더불어 아름다운 숲 발굴, 숲속 학교와 탄소 중립의 숲 조성, 점경 지역 숲 복원 프로젝트 등 공익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여 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여의도의 11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조성한 '몽골 유한김벌리 숲'은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사막화 방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한김벌리는 제품 환경성 개선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경영 3.0'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원료로 만든 제품의 매출 비중을 95%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인증 펄프 사용 ▲포장재를 절감하는 대용량 제품 공급 ▲재생 포장지 사용 ▲생분해 가능 제품 출시 등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年 7만여 건의 고난도 수술... 의료 저개발국에 전수



칠레에서 온 알베르도 환자가 간이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의료진의 축하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매년 7만여 건의 고난도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외래환자 1만3000여 명, 입원환자 2600여 명.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아산병원은 암·장기이식·심장병 등 매년 7만여 건의 고난도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3차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수술을 의뢰받아 완치시킨다'는 뜻의 '4차 병원'이라 불리며 중증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행한 '2022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암 분야 세계 5위 ▲내분비 분야 세계 5위 ▲소화기 분야 세계 8위 ▲신경 분야 세계 8위 ▲정형외과 분야 세계 12위 ▲호흡기 분야 세계 27위 ▲심장 분야 세계 35위 ▲심장 수술 분야 세계 52위를 차지했다.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세계 최고 병원' 종합 순위에서도 3년 연속 '국내 1

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명성을 지켰다. 박승일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이 메이요클리닉, 하버드대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실력 있는 병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온 해외 의학자들에게 고난도 수술 기술을 전수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고(高)난도 수술 기술을 아시아 의료 저개발국가에 전수하는 '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Asan In Asia Project)'도 진행하고 있다. 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의료 저개발국가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의료 선진국 의사에게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500여 명의 해외 의학자가 서울아산병원에 연수와 고난도 수술 및 치료 기술을 배우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서울아산청라병원 건축'이다. 2023년 착공해 2026년 완공 후 2027년 개원하는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세계인이 신뢰하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

로 건립돼 '글로벌 서울아산병원'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800병상 규모의 중증환자 치료 전문병원으로 계획됐으며, 외국인 환자 맞춤형 진료체계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인 감염관리센터(Center for Infection Control·CIC)를 개소했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는 감염병 및 감염병의 심환자를 응급실과 외래 내원(來院) 단계부터 분리해 검사→입원→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민간병원 최초의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이다.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준비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0년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 2019년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AMIS 3.0)에 이어 올해는 디지털병리시스템까지 구축하며 미래 의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얻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는 향후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라=문미영 객원기자

ESG 경영 추진을 위한 Solution, 전문성과 진정성을 가진 KMAC가 함께 합니다!

Create ESG value With KMAC

KMAC는 業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ESG경영 수준진단을 바탕으로 ESG경영체계 수립 및 내재화, 기후변화 대응 및 인권/산업안전,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국내외 ESG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 전 영역에 걸쳐 ESG경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SG Way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차원의 ESG비전 및 전략체계 구축 계열사/공급망(협력사)까지 포함하는 ESG 통합관리 체계 수립 ESG내재화를 위한 조직역량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ESG 영역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등) 컨설팅 ESG기반의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사업 전략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인권경영 및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ESG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측정(외재화) 국내외 주요 ESG평가 대응 컨설팅 	공공기관/자재 ESG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진단 및 분석체계 설계 기관의 ESG비전 전략체계 수립 ESG 전략 역량성 검토 및 세부 추진 과제 발굴 전사 중장기 발전 전략과의 연계 방안 ESG 추진체계 구축(조직, 시스템) 및 성과관리연계
중소기업 ESG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ESG관련 규제 및 글로벌 이슈(탄소) 현황 분석(수출기업) 자사 맞춤형 진단(내재·수입 및 협력업체) 도출(관리체계 고도화 지원) 주요 고객사(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ESG추진 대응 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業의 특성을 반영한 보고서 기획/발전 최신 글로벌 기준 적용 (GRI, TCFD, SASB 등) (Double) Materiality 평가를 통한 이슈도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지원 	맞춤형 ESG경영 내재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의식기반 조직문화 형성 교육 특수군별 ESG 헌법적용 방안 국내외 우수(선도)기업 벤치마킹

문의 : ESG혁신본부 02-3786-0653 / ksoh@kmac.co.kr

업계 최초로 'ESG 성과보고서' 발간... 80개 과제 실천



임영진 대표이사 사장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업계 최초로 'ESG 성과보고서' 발간 등 ESG 경영 80개 과제 실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ESG 경영 6개 우수사례 시상식 장면.

신한카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신한카드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 ▲All Star 기업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신한카드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신한카드는 세 가지 가치(편리성·안정성·혁신성)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 결과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업계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 부서 신설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와 전사(全社) ESG 협의체 운영 ▲2019~2020년 ESG 경영 성과를 담은 'ESG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의 탄소 중립 선언에 발맞춰 환경부 주관 'K-EV100' 무공해 차량 전환 캠페인 참여와 페플라 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카드 플레이트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특히 CDR(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기업의 디지털 책임 경영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선언하며 디지털 금융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ESG 경

영'까지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에코존' 조성 및 '걷고 싶은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경영 체제 관련 최고 수준의 인증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획득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슈퍼앱으로 진화하는 신한플레이를 통해 생활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라이프&파이낸스'로 '업(業)의 프레임'을 전환해 '일류 신한'만의 특별한 고객 경

험까지 창출하고 있다.

신한플레이는 통합·속도·개인화 기능을 향상시켜 '셰이크&슬라이드(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 화면에 터치 패널로 결제 실행)' 적용 등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결제·뱅킹·자산관리 ▲하나의 바코드로 적립되는 제휴사 통합 멤버십 ▲신분증·인증 ▲고객 맞춤형 콘텐츠 등 비금융 영역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슈퍼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듯 신한카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우 아동에 방학 중 밀키트, 독거노인에 명절 영양식



진옥동 은행장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2009년부터 신한음악상을 제정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친환경, 상생, 그리고 신뢰'라는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 전략에 따라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작은 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밖 사각지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동행' 프로젝트가 있다.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 개선과 자립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3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센터에 차량·유류비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방학 기간 중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밀키트(meal kit·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손질된 식재료) 정기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한국어 및 심리정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또 명절 기간 독거노인에게 명절맞이 영양식 제공 등 프로젝트를 시리즈 형식으로 지속 추진해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 본업 특성을 살려 전 세대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이동점포(뱅크드)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교육부와 연계한 '1社1교 금융교육' 등이 있다. 화폐와 저축 이야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구성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획·제작부터 공연까지 참여하는 금융교육 뮤지컬과 발달장애 성인 대상으로 하는 생활금융교육 등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의 취·창업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20년 12월 신한은행 본점 임직원들 사용 공간인 '신한심포니'에 청각장애인 일자리인 '카페스윗(Café S with)'을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 광교에 있는 백년관 건물에도 추가 오픈해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신한음악상을 제정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신한갤러리에서는 신진작가나 장애인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20년에는 송래문, 2021년에는 덕수궁에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유명 배우와 전문 성우들이 내레이터로 참여해 역사적 상황 재연이나, 1인칭 시점 설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과 협업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S²Bridge(신한스퀘어 브릿지)'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사용료 2조 면제... 86% 공항 종사자 일자리 보호



김경욱 사장



인천공항은 지난해 개항 20주년을 맞아 ESG 경영혁신을 선포해 전사적으로 ESG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ESG 경영혁신 선포식 장면.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처음으로 하늘길을 연 이래, 지난 20여 년간 혁신과 도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7만여 공항 가족의 노력과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국제화물 세계 3위 ▲국제여객 세계 5위의 글로벌 거점 공항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의 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도 시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항사용료 면제와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공사는 공항산업 파트너들과 곁까지 함께 분담하는 동반성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약 86%의 공항 종사자 일자리를 보호했다.

올해는 공항산업 회복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 근로자의 재취업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힘쓸 예정이다. 우선 청년근로자의 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인천공항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 교육기관과 협업해 이·전직을 위한 공항 특화 과정까지 개설해 복지자의 업무 적응도 지원한다. 이렇게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항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여객 수요 증가에 원활히 대응한다는 목표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개항 20주년을 맞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도 선포했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

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경영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미래 신산업 성장 확대 등 4대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전담 조직을 뒤 ESG 경영전략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지역 사회·항공산업 관련 51개 기업·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시민참여혁신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ESG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편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신설 등 공공부문의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대국민 신뢰 회복의 해'로 삼고, 공사(公社) 내부뿐 아니라 자회사 등 경영 파트너와 함께 반부패·청렴 경영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회사에 상임감

사치를 신설함은 물론, 맞춤형 교육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쇄신 등 실천적 내재화로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경영까지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자 한다.

공기업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공항 생태계 내부에 인권·공정·투명윤리라는 핵심 가치를 확산시켜 전사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개항 이래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으로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2연패는 물론,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ACI) 고객경험인증제 4단계(현재 최고 등급)를 획득한 유일무이한 공항으로 성장했다. 이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허브공항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ESG 허브공항으로 새롭게 기록하고 있다. 정리=이보라 객원기자

Green Value for All

Change and Innovation with ESG 2030

한일시멘트는 항상 더 들었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는 것. 한일시멘트는 더 들겠습니다. 더 들고 가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기업 19년 연속 시멘트 부문 1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6년간 평균 취업률 79.3%



영진전문대는 사랑과 봉사 정신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진전문대 학생이 지난해 9월 '코로나19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참여해 헌혈하고 있다.



최재영 총장

영진전문대학교(이하 영진전문대)의 교육목적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한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학문과 기술을 연마시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영진전문대는 기업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이 동행(同行)하는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취업률 전국 최고(最高), 해외취업 전국 1위에 올랐다.

2022년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영진전문대는 취업률 75.3% (2020년 졸업자 기준)를 달성했다. 이를 포함한

최근 6년간 평균 취업률은 79.3%에 달한다. 3000명 이상 대규모 졸업자를 배출한 대형 전문대 가운데 유일한 성과이자 전국 1위 기록이다.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쓴 영진전문대는 일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100명(2020년 졸업자 기준)을 해외에 취업시켰다. 실제 196명이 내정됐지만, 일본 비자 발급 중단 사태로 예정 인원의 절반 수준인 100명에 만족해야 했다. 국내 2~4년제 대학 중 100명대 해외취업 성과는 영진전문대가 유일하다.

전문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영진전문대는 2021년 교육부 핵심 사업인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는 총 8개 분야 중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2개 분야에 선정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

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2~2023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학부 단기 과정 수확대학' 사업에 영진전문대가 전국 전문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편, 영진전문대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와 이웃사랑 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교육 기부 기관으로 지정돼 대구·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 봉사단은 매년 겨울철이면 지역 쪽방세대에 사랑의 연탄나누기, 김장나누기 활동을 펼치며 사랑과 봉사 정신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재영 총장은 "융합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문성과 인성이 어우러진 인재를 배출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최초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1:1 서비스 출시



강호준 대표이사

대교는 업계 최초로 '학습지'라는 교육 서비스 개념을 탄생시킨 국내 대표 교육기업이다. '눈높이' 브랜드로 개인별·능력별 1:1 방문학습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더해 '눈높이 교육' 철학으로 교사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었다.

교육 시장이 비대면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교는 디지털 퍼포먼스 러닝 브랜드 '대교 써밋' 과 초등 전 과목 AI(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전자 '마카다미아 올인원'을 통해 에듀테크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대교 써밋'과 '마카다미아 올인원'은 AI 알고리즘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단련시키고, 학습 역량까지 강화해 '알아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힘을 길러 준다. 대교가 전개하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고객 중심'이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함께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자'는 경영철학을 가진 대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 교육 지원과 윤리경영까지 강



대교 제공

대교는 지난해 말 초등 전 과목 AI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전자 '마카다미아 올인원'을 출시하며 에듀테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느린 학습자, 다문화·외국인 자녀 등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 기업 최초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1:1 서비스 '마이페이스'도 출시해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 대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생명 윤리 ▲성 평등 의식 ▲환경 의식 ▲안전 의식 ▲다양성 의식 ▲디지털 윤리 ▲가치중립성 ▲역사의 의식 등 8개 항목의 콘텐츠 윤리 가이드를 수립해 눈

높이·차이 등 교육 콘텐츠를 재검토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시니어를 위한 토탈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를 론칭하고 경기도 광명시에 데이케어(주간 보호)센터 1호점을 오픈했다. 시니어 사업에 본격 진출한 대교는 ▲시니어 인지 활동 콘텐츠 ▲장기요양보

험 서비스 사업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시니어 라이프 케어 제품 출시 등 시니어에 최적화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 계약 어려운 소상공인 위한 '상생택배' 선보여



11번가 주식회사

이상호 대표이사 사장

11번가는 쇼핑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커머스 포털(commerce portal)', 즉 쇼핑의 관문으로 진화하고 있다. '재미' '정보' '참여'라는 11번가만의 차별화된 가치로, 기술 혁신을 통해 탐색부터 구매까지 쇼핑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11번가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SSG닷컴·우체국택배·이마트몰·홈플러스·GS프레시몰과 제휴해 당일·새벽·익일(다음 날) 등으로 배송 혁신을 추진했다. 예능형 라이브 방송을 표방하는 '라이브11(LIVE 11)'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접목해 실시간 고객 참여와 매끄러운 진행이 특징이다. 2019년 11월 선보인 동영상 리뷰 서비스 '꼭꼭'과 지난해 4월 시작한 해외직구 상품 대상 '선물하기' 서비스는 업계 최초의 시도였다.

지난해 8월에는 아마존 미국(Amazon US) 판매 상품에 11번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도 오픈했다. 가전·디지털·컴퓨터·주방용품·패션·잡화·화장품 등 13개 카테고리 속 수천만 개의 아마존 상품을 판매한다. 검색·주문·결제 등 모든 과정을 11번가 쇼핑 환경 그대로 제공해 편리하다. 상품 정보 및 기존 상품 리뷰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고, 아마존 전담 고객센터에 한국어 문의도 가능하다.

11번가는 착한 소비를 이끄는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노력도 지속해왔다. 우체국과 협업해 발송 물량이 적어 택배 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택배' 서비스를 선보였다. '빠른 정산' 서



11번가 제공

11번가는 지난해 8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하며, '우주팩스' 가입 시 미국 상품 무료배송 등 혁신적인 해외 직구 서비스도 개시했다.

비스도 업계 최초로 도입해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전달한 바로 다음 날 정산금을 100% 지급한다.

'착한 소비' 문화 확산 및 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11번가 판매자가 등록한 희망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자동으로 희망후원금이 적립된다. 2013년 '희망소핑' 캠페인 론칭 이후 현재까지 누적 희망후원금은 약 67억 원에 달한다. 희망후원금으로 지난해에는 ▲청각장애 아동 지원(사랑의달팽이)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행복얼라이언스) ▲유기·반려동물 지원(동물자유연대) 등을 펼쳤다. 또한 ▲'십일초이스' 상품 일부에 친환경 택배 박스 도입 ▲비닐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교체 ▲무(無)라벨 생수 '울스탠다드 샘물' 출시 등 환경 보호 활동도 활발히 전

개했다. 11번가는 전사(全社) 차원의 보안 정책을 매년 고도화하고 보안 위협 요소와 취약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업계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 표준정보보호인증 'ISO 27001' 'ISO 27701'도 동시에 획득했다.

한편 11번가는 지난 1월 고객이 직접 쇼핑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팁톡' 서비스까지 정식 오픈했다. '커피머신 없이 우유커피 마시는 법' 등 쇼핑 경험에서 우리나라 노후우주부터 생활 팁 등을 업로드해 다른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다.

정리=김수정 객원기자

SAMSUNG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우리집 가전!
세척 - 케어 - 점검 한번에

삼성케어플러스 | 가전·TV

전문세척 가전케어 이전설치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세요

삼성케어플러스의 차별화된 솔루션

- 계통을 일괄 점검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별 전문가가 직접 서비스 수행
- 고압 호스, 스팀 살균기 등 사용하는 제품 특성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장비로 빈틈없이 꼼꼼하게 점검
- 콜센터 및 현장 엔지니어 찾지만 체계 구축으로 고객이 원하는 때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

가전제품 서비스 신청 당일 수리... 고객 만족 높아



삼성전자서비스가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비스센터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평가 이후 단 한 번도 왕좌(王座)를 놓치지 않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펼친 끊임없는 혁신 활동의 결과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178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오지(奧地)에는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탑재된 버스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였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달려가 점검하는 '휴대전화 방문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생활필수품인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제품은 서비스 신청 당일 수리를 목표로 신속·정확하게 접수→출동하고 있다. 출장 중에 다른 제품도 추가로 무상 점검해 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플러스 점검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리 엔지니어 방문 없이 고객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원격상담 서비스'도 있다. 이는 고객이 콘택트센터(contact center)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서비스를 신청 당일 수리를 목표로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사가 제품과 연결된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HRM(Home Appliance Remote Management)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원격으로 제어해 제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인공지능 채팅 상담 서비스 '챗봇'을 통한 출장 서비스에 약이나 예상 수리비 확인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가전 관리 서비스 '삼성케어플러스'도 도입했다. 삼성전자 가전 전문 엔지니어인 케어마스터가 제품 세척은 물론 점검 및 수리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수리

비에 상한선을 두는 '수리비 상한제'와 수리한 부품의 보증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주는 '부품 보증기간 연장제' 등은 고객 만족도가 높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된 이유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국내 최대 AS 인 프라와 임직원의 특화된 수리 기술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무상 점검해 주고 재난 지역에는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하는 등 재능 기부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제품 체험부터 상담까지... 고객 친화 기업 재탄생



캐논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사무기와 카메라 사업 경역을 통합한 합병 법인으로 출범했다. 이를 통해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났다.



캐논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일 사무기와 카메라 사업의 경역을 통합해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했다. 두 사업 영역의 전략적인 조직 재정비로 경영 효율성과 사업 역량을 강화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985년에 창립한 캐논코리아는 통합 기업으로 재출범하며 '입력에서 출력(INPUT TO OUTPUT)'까지 가능한 '토탈 이미징 솔루션(Total Imaging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났다.

캐논코리아는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플래그십 스토어인 '캐논플레이스'에 사무기와 카메라의 '토탈 이미징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2층에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매장도 솔루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 컨설팅 존으로 꾸몄다. 4층 캐

논 아카데미에서는 사진 및 영상 관련 강의가 이루어진다. 올 상반기 중에 캐논 카메라와 프린트의 전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는 '셀프 스튜디오'도 오픈한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1월 26일 개최한 '인-아웃풋(IN-OUT PUT) 풀 솔루션' 온라인 세미나에서 캐논 카메라와 프린터로 고품질 결과물을 입·출력하는 '토탈 이미징 솔루션' 전 과정을 시연했다. 이를 통해 통합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오는 7월에는 캐논코리아 브랜드와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해 콘텐츠 허브로 운영할 계획이다.

캐논코리아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B2C(Business to Consumer) 영역을 포괄한 고객 친화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사무기 영역에서는 복합기·프린터·스캐너·프로젝터·네트워크 카메라·의료기기 등을 제공하고, 사진 및 영상 영역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렌즈·캠코더·방송용 영상 장비 등을 지원한다. 판매 채널도 다각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충족하며 향상된 고객 가치까지 창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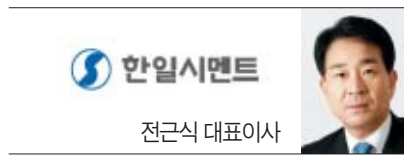
양 사로 나누었던 전문 판매 채널을 통합해 한층 다양해진 상품 라인업에 대한 영업 기회도 확대했다. 사무기와 카메라의 판매 거래처를 공유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넓히고, 미(未)진입 시장에 대한 개척도 가능해졌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와 판매·마케팅·서비스 등은 유지하면서 판매법인은 통합해 캐논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 시장 공략까지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캐논코리아는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 가능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한 경영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최세환 대표는 "캐논코리아는 1985년에 창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해왔다"면서 "최첨단 광학 기술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과 고객 신뢰로 사무 혁신, 삶의 안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친환경 설비에 2710억원 투자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일시멘트는 봉사단 'WITH', 단양공장의 '활소봉사회' 등이 '지역사회 밀착형'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비롯해 시멘트 2차 제품인 레미탈·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기초건설자재 탑티어(top tier·일류) 기업이다. 1961년 설립돼 지난 60년간 국가 기간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했다. 한일시멘트는 더 나아가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확대 ▲ESG(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100년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사회·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과 혁신적 제품으로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업계 최초로 기업 공개(1969년) ▲국내 최초로 벌크시멘트 출하(1970년) ▲업계 최초로 사내 근로복지 기금 조성(1988년) ▲국내 최초로 드라이모르타르 출시(1991년) 등 대한민국 시멘트 산업의 역사를 썼다. 최근에는 경영 투명성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

하고, ESG 경영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1991년 국내 최초로 시멘트보다 사용성과 친환경성이 높은 레미탈을 출시했다. 2004년에는 업계 최초로 전 사업장이 국제 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취득하며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일시멘트는 건설 현장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일시멘트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타일접착용 모르타르 폴리픽스 1000' '타일접착용 모르타르 폴리픽스 2000'은 기존 타일시멘트보다 약 80%의 분진을 줄일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은 시공 횟수를 줄여 공사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및 편의까지 크게 높였다.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3월 'ESG 경영' 선언 후 'ESG 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2025년까지 친환경 설비에 27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정 KPMG와 손잡고 'Green Value for All'이란 환경 중심의 ESG 비전을 구축

했다. 올해부터 모든 경영활동을 ESG에 맞춰 재정비하고, 한일네트웍스·한일산업·서울랜드 등 모든 유관 회사도 ESG 경영에 동참한다.

한일시멘트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창업주인 우덕허 재경 선대 회장이 1983년 설립한 '우덕재단'이 그 중심에 있다. 우덕재단은 매년 약 200여 명에게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까지 우덕재단 지원을 받은 장학생은 총 4770 명에 달한다. 장학금 외에도 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학술연구비 지원과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011년 창단한 한일시멘트 봉사단 'WITH', 단양공장의 '활소봉사회' 등 사내 봉사단체도 '지역사회 밀착형' 선정을 펼치고 있다.

전근식 대표이사는 "한일은 60년간 국가 기간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경제발전과 함께해왔다"면서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그동안 이어온 투명·나눔 경영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에도 동참해 100년 기업 비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문미영 객원기자

ANGRY TRUFFLE WHOPPER®

앵그리 트러플 와퍼®

* 본 제품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burgerking.co.kr TM & © 2022 Burger King Corporation. Used under license. All rights reserved. 일부 재료는 현지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열, 대두, 우유, 토마토, 식초, 난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외이웃 지킴이캠페인 등 차별화된 사회공헌



S-OIL은 시민·환경·지역사회 및 소외이웃을 위한 '지킴이캠페인'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 등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S-OIL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4년 연속 'All Star 30(30대 최우수 기업)' 및 6년 연속 정유 부문 1위에 선정됐다.

S-OIL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경영 자산 활용으로 지난해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가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과 환경친화 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 있다. 이에 글로벌 유통기유 공급 메이커이자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유통유를 수출하는 K-루브(Lube) 대표 브랜드로 위상을 확립했다.

정유·석유화학 및 유통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사업구조를 갖춘 S-OIL은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의 'DJSI World' 부문에서 아시아 지역 정유사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2010~2021년)' 선정됐다.

S-OIL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기업'이라는 Vision 2030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특화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 카드(멤버십)와 다양한 제휴 신용카드 프로모션 ▲정품·정량회사가 보증하는 '믿음기득주유소' 제도 ▲수도권·남부권 환경품질등급평가에서 휘발유·경유 최고 등급 획득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YES팀' ▲세련된 외관과 쾌적한 주요 공간을 위한 새로운 사이니지(signage) 설치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스타오일캠페인(장애인 주유 보조 서비스)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등 공익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시민·환경·지역사회 및 소외이웃을 위한 '지킴이캠페인'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 등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의 가치까지 실천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S-OIL은 "존경받는 기업의 본질에 충실히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일관된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 등 해양 폐기물 수거 앞장



국내 최대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과 현장 안전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수산부문에서 8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동원산업은 글로벌 수산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에 참여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부문의 리더 기업으로 다양한 환경 영향 저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원산업은 지난해 6월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SeaBOS' 회원들이 합의한 해양 플라스틱 감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서울과 부산, 해외 사업장 등에서 열렸다. 부산에서는 동원산업 부산지사 임직원들이 감천항·송도해수욕장·남양공원 등에서 4



동원산업은 지난해 6월 해안가에 밀려온 각종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를 서울과 부산, 해외 사업장 등에서 진행했다.

인 1조가 돼 해안가에 밀려온 각종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더불어 서울 강남구 동원그룹 사옥 앞으로 흐르는 양재천 일대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환경개선 작업까지 진행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지난 2020년에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조업에 사용하는 집어장치(FAD)를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서 생분해되는 나무와

천연섬유 소재의 바이오 집어장치로 바꿨다. 또한 수산물 보냉재인 아이스팩도 100% 물과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량 교체 사용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7월 안전재해통합TF 발대식에서 '자율 안전경영'을 선포했다.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중대 재해 발생 제로'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중심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3400여개 소·직·가맹점서 일회용 칼 줄이기 캠페인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1988년 첫 매장을 연 이래, 국내에 생소했던 프랑스풍 베이커리 문화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일회용 칼 줄이기 캠페인'을 전 매장으로 확대·시행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말에 케이크 구매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주는 캠페인을 직영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 캠페인은 고객 및 가맹점주들의 큰 공감대를 얻어 3400여 개 모든 직·가맹점으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대상 품목을 일반 케이크뿐 아니라 포장 내에 기본으로 동봉된 롤케이크·파운드케이크·파이류 등 일회용 칼이 제공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약 110t(연평균 일회용 칼 사용량의 50% 기준)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주도로 시작된 친환경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11월 일부 소비자들 케이크 제품에 동봉된 일회용 칼을 모아 고객센터로 보내는 '뽕 칼 아웃(OUT) 캠페인'을 SNS 플랫폼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공감한 파리바게뜨는 가맹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회용 칼 줄이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말부터 케이크 구매 시 제공되던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주는 '친환경 캠페인'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기 캠페인'을 전국 매장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이커리 및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 농산물로 제품을 개발하는 상생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SPC그룹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원 평창 감자, 제주 구와 당근, 충남 논산 딸기, 전남 무안 양파, 경북 영주 풍기인삼이 들어간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농산물 수매와 제품화를 넘어 ▲농산물 신제품 확대 ▲청년농부 육성 등 농가 경쟁력 강화와 함께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충남 논산 청년농부들이 키운 딸기 '비타베리' 품종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 최적화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제품 판로와 수익 확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등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농가가 신제품 재배 확대 및 품질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비타베리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딸기 연구소가 2019년에 수출용으로 개발한 신품종으로 과일의 경도·향·당도·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SPC그룹 연구소인 이노베이션랩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비타베리의 제품화를 위해 충남 딸기연구소, 논산시와 함께 베이커리에 최적화된 품종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연구해왔다.

또한, 비타베리는 논산시 청년농부들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어 청년농부 지원의 의미를 더했다.

국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인 고령화 문제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청년농부 육성의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리=이보라 객원기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높은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KOREA'S Most Admired Companies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에...!

존경받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동안 변함없는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G경영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변하지 않는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우리 경제에 진정 존경받는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은 더 밝은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울아산병원 • All Star 및 종합병원 부문 •	 유한양행 • All Star 및 제약 부문 •	 에스-오일 • All Star 및 정유 부문 •	 유한킴벌리 • All Star 및 생활용품 부문 •	 Incheon Airport 인천국제공항공사 • All Star 및 SOC/시설관리 부문 •	 삼성물산 • All Star 및 건설/종합상사/패션 부문 •	 신한은행 • All Star 및 은행 부문 •
 신한카드 • All Star 및 신용카드 부문 •	 Pulmuone • All Star •	 11번가(주) • 오픈마켓 부문 •	 BURGER KING • 프랜차이즈 부문 •	 BODYFRIEND • 헬스케어 부문 •	 HANKOOK driving emotion • 타이어 부문 •	 HANSEM • 가정용가구 부문 •
 한일시멘트 • 시멘트 부문 •	 영진전문대학교 YELGIN UNIVERSITY • 전문대학 부문 •	 Maeil 매일유업 • 유가공 부문 •	 삼천리 • 도시가스 부문 •	 DAEKYO 대교 • 교육서비스 부문 •	 일신bank • 면방직 부문 •	 Dongwon 동원산업 • 수산 부문 •
 SAMSUNG 삼성전자서비스 • 서비스센터 부문 •	 신한금융투자 • 금융투자 부문 •	 Hansol 한솔제지 • 제지 부문 •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 사무기기 부문 •	 Rinnai • 가정용보일러 부문 •		

본 광고는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과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한 광고입니다.